



박형식 선생.

본명: 박 보르드르 가브리엘로위치는 1909년 정월 18일에 원동병강 수완구역 노보-리덱스크 촌에서 박창극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박형식 선생의 부친 박창극씨는 1891년에 역시 원동병강 우수리 구역 연후혜 촌에서 제정 러시아 국적을 받은 월호집 가정에서 한생한였다. 박형식 선생이 1916년 부터 소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나 그 해에 아버지가 제정 러시아 군대복무에 징병되어 집에서 떠난 그를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공원노릇을 하고 있는 삼촌의 집이어서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다. 박형식의 부친 박창극씨는 원적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다음 이즐꾸스크시에서 사범정신학교를 마감하신 당시 한인들 중에서 군어를 아주 방불하게 소유한 유식한 일터이었다. 때문에 사권을 마감한 박창극씨는 정주군에 동원되기 전까지 군 기관아래 비서를 제했다. 군대에 나가서도 사병들의 신임이 높아서 1917년 2월 혁명 이후 군인 혁명 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어었다. 그 당시 전후 부대에 배속되어 제 1계선에서 독일군대를 반대하여 계속 전후활동을 하고 있던 박창극 선생은 동년 4월에 증상을 감하여 원동병강 우수리시에 후송되었던바 그 때 동(후) 1

완치되었으나 군사검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군인복무에서 제병직의 사화에 나가게 되었다. 사화에 나간 박형식은 원종변감 한인 협회 책임비서로, 원종공화국 원민 혁명군 정치부 지도원으로, 혁명군사위원회 한인 위원회 비서로 일하시다가 원종에서의 공민전쟁이 끝나고 소비에트 공권이 확립된 다음에는 1934년 까지, 즉 한인 민테리토에 대한 소비에트 적 전반적 한압이 시작될 때까지 당 단체들과 소비에트 기관들에서 책임적 일을 하셨습니다.

박형식 선생은 원종에서의 원민 생활이 단련되자 하여 지가 집에 돌아와 삼촌의 집을 부러 자기 집이 있는 소코트브 시에 와서 1925년에 초중을 필히 하시었다. 이 초중에서 공부할시 박선생은 소년단에 입회하였으며, 다음 초중 졸업반에서 공부할 때에 레닌 공산 청년회에 입회하였다. 박선생은 1925년 가을에 블라디보스토크 사전에 입학하여 1929년에 졸업하였다. 1929년 부터 1931년 까지 소학교 교장으로 일하다가 1931년에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사대 흥신 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여 1935년에 특사 지리 학부를 졸업하였다. 박형식 선생은 사대 흥신 학교에서 공부할시 즉 1931년 부터 1935년까지 소비바스코 시 초중에서 지리학 교원으로 계시다가 마지막 2년 동안은 그 초중 교장으로 일하시었다. 이 당시에서 즉 1932년에 박선생은 리 소피아 알렉산드롭나에게 장가를 들어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다. 1936년 3월 부터는 박선생은 소비바스코 시 교외부 학교장으로 1937년 9까지 즉 한인들이 원동으로 불어 강제이주를 당하는 날까지 일하시었다. 강제이주로 인하여 박선생은 두근베 공화국 페르가나 시에 도착하게 되었으며, 동년 11월 부터 1940년 7월

까지 프루가나 시 교육부 교육과관 겸 시학으로 일하시었다 3.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М. Т. КИМ

КОРЕЙСКИЕ
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Ы
В БОРЬБЕ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918—1922)

Дорогой брат Владимир! Книга Матвея Мильднера, вышедшая из печати в результате многолетнего труда, посвятившего себя изучению истории революционных действий корейских 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ов. Это замечательная работа, которая дает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узнать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Пак Чанг-ха (Пак Чанг-ха) и его соратников в борьбе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втор книги, Матвей Мильднер, был участником этих событий и поэтому его рассказ о них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м и ценным. Книга посвящена деятельности Пак Чанг-ха и его соратников в борьбе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втор книги, Матвей Мильднер, был участником этих событий и поэтому его рассказ о них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м и ценным. Книга посвящена деятельности Пак Чанг-ха и его соратников в борьбе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втор книги, Матвей Мильднер, был участником этих событий и поэтому его рассказ о них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м и ценным.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ГЛАВНАЯ РЕДАКЦИЯ 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А
МОСКВА 1979

이상 책 내뉘는데 관하여 쓴 글은 박형익 선생이 사량하기 전 196 일을 앞두고 자기 동생 월로사에게 쓴 것이다. 이리 아래에서 이책이 무슨 책이기에 이렇게 긴 유서로 썼는지, 또 무엇 이라고 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책 표제 내용: 소련 과학원 동양학 연구원
김 마르베이 저.

"원동변강에서의 소비에트 주권의 확립을 위한 한인-국제
주의자들의 투쟁"

출판사 《과학》 동양 문학 중앙출판사, 모스크바 1979년

박형식 선생이 쓴 유서의 내용:

귀공한 동생 블라디미르!

수년간 진지한 노력의 결과 마르베이 저의 문헌에 위키 책이
출판되었다. 이것으로써 역사가 모르고 있던 영예로운 한인 혁명자
- 국제주의자들의 업적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구히 기록하였다. 나는
이 책에 나의 아버지 박창규, 나의 삼촌 박창익, 아버지의 사촌동
생들인 박창섭, 박창인 이상 나의 친척들이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하여 높은 긍지감을 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자기 아버지의 충실한 계승자이며, 또한
진실한 레닌의 후계자, 공산당원 - 국제주의자임을 자랑스럽
게 생각한다.

이 책의 각 페이지들을 읽을 때면 그 책 12장의 불꽃 속에서 연약한
어려이름 따라 원수들의 위협을 두려워 숨겨다니며 그 불행스럽
고 가슴아프던 최하의 빈궁과 험난한 복에서 살아간 우리의 노년
시기를 다시한번 회생케 한다. 이것은 잊을수 없다.

1979년 4월 20일, 너의 비헤자: 코스도브시.

(비헤자)는 박형식의 애칭.

이상 김 마르베이 선생이 쓴 초책자에는 62명의 가장 저
명한 한인-국제주의자들이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계신
리동휘 선생, 리용, 남만춘 박진운 선생들이 기록되어 있
는 소련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책이다
이 책에 박형식 선생의 부친을 위하여 4행시가 기록되어 있

다른것은 박성생의 전체 철학들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일이다. 이책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도 한말 당하고 강제 미주에 끌려 중아시아에 와서 살고 있던 한인 제 2세대, 3세대들은 이상 전설적인 영웅들에 대하여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후 박성생은 -

1940년 7월부터 1943년 4월까지 페르가나도교육부 간부과장으로 제직이며, 1943년 7월부터 - 1944년 11월까지 도교육부 부부장으로 일하신 다음 1944년 12월부터 1945년 10월 까지 페르가나 시 인민위원회 대외보통 부장으로 소련군에 초보원때까지 일하시었다.

1945년 10월에 소련군에 공병리며 원종 변강 영웅의 죽음을 도왔다. 동년 11월에 소련 제 25군단 소속으로 북한에 들어와 북한 소련 원전 사령부 총영관으로 복무하였다. 1946년 6월 부터 1951년 9월까지 북한 내각직속 고급지도 간부 학교 세계 경제 지리 교원으로 2년간 일하신 다음 교장직 무에서 3년간 제직다. 1951년 9월부터 1952년 12월까지 북한 교육성 차관 직무를 지내시었다. 1953년 1월 부터 1961년 4월까지 평양 사범대학 총장으로 일하시었다.

박성생은 북한에서 사법하고 인습이 불법적인 교육일군으로서 국제 평화 운동 후사들의 선열에서 진정한 평화주의자로서 평화사상을 꾸준히 실천하였다. 이것은 박성생이 평화애호 후사로서 북방인민의 대표로서 수회 국제 평화운동 기구 회의에, 평화운동 대회에 참가하신 다음부터 박성생의 평화사상은 더욱 강하게 되었다. 박성생은 1947년에 체코에서 진행된 제 1회 평화운동자들의 대회에 참가 하였으며, 1950년에는 파란에서 열린 국제 평화운동자들이 대회에 참가 하시 었다. 특별히, 파란 평화운동자들의 대회가 끝난 다음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1947년 히틀러 강적자들의 파란을 없애 평화를

였을시 무대한 유대인들을 학살한 오스비엔진 강제 수용소를 창안
 하시게 되었다. 유럽에서도 유대인들을 제일 많이 학살한 오스비엔진
 수용소는 박형식 선생의 귀환보고와 그후 계속 출현하신 강의 자료에
 의해서도 연도한 유대인들이 학살 당할시 남겨 놓은 죽은 집행이만
 하여도 5만개 여쌍이제, 10세 미만 어린아들의 신발만 하여도
 50만 켤레 이상이었다고 하였다. 파쇼배들은 어떻게 잔인 무도하게
 평화로운 백성들을 학살하였다. 때론에 파쇼배들은 다시 어서쌍에
 노생해 나리 못하도록 인간 사되는 후생해야 되며, 전쟁이란 언제
 나 민간에게 무한한 고통과 경제 파산을 주기 때론에 인간은 어
 세쌍에서 전쟁을 근절하여, 그 전쟁이 발생할수 없는 근본을 철심
 하여야 된다고 무차 강조하시였다. 박형식이 어진 강의를 계속
 북한 내각중앙 강부학교에서 하고 있을시, 바로 북한이 남한을 반대
 하여 시작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남한의 늑은이들이 피도
 어린 아아들이 피도 계속느르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주의 교육강
 령은 전쟁을 두종류로 분별하여 - 정의의 전쟁, 부정의 전쟁으로
 갈라 놓고, 북한의 남한을 반대하는 전쟁은 정의의 전쟁으로 명명
 하고 다음과 같이 "공명" 하였다. 우선 남이 북침하였기에 북은
 자기 나라를 옹호하고 인민을 옹호기 위한 전쟁으로써 정의의 전쟁,
 둘째로, 남한에는 왜래 침략자 -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론에
 북한은 자기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기때 정의의 전쟁이라고 결
 론하였다. 그 전쟁이 남침으로 시작된 실정과, 남한의 미군 주둔은
 우선 항복되사되는 결정적이기때에서 반 미투어전 현상이란 것은 일
 반적 북한 현상들은 흐르고 있던것만 사실이다.

이 리론에 근거하여 현재에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강하게
 노동당의 강령으로써 북한은 언제나 적당할 환경만 조성되면 정의의
 전쟁을 일으켜 기꺼운 남한을 미제국력들의 "강점에서" 해방시켜야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강조하고 있다. 1960년경, 북한에서 소련화
 에 대한 사상검토 연극이 거어나 종말 되며가고 있을시, 박형식 선생이 6

대한 사상검토 언벌이 시작되었다. 사상 검토 회의를 사대 교직원과
로동당 열성자들 전원 참석하에 열은 근 일개월간 끝내서 박선생의 당
및 개체 생활에서의 결점에 대하여 호롱하라고 회의참가자들을 종
라 했으나 어느누구도 반대호른 하는 사람은 하나로 없었다.

허가이나, 박창욱, 박영민 등 반당 종파분자들디 어떤 지시를 받았
으며, 소련 관료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에 대하여 어떤 해독사업
들을 하였는가 하는 물음에, 박선생은 아무런 유해로운 반당적, 반연민
적 해독사업을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였을 뿐이었다.

박선생은 사실평화옹호자들의 대회들에 참가하여서와 또 특히
파란 오빠변신같은 강제 수용소를 참관 한후 견결한 반전-평화
옹호자가 되었다. 전쟁이란 어떤 전쟁을 말하라고 박선생은 피
홀리게 하여, 경제에 파산을 주어 사회 발전에 지장을 주는것은

무조건적 철칙이란것을 똑똑하게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사상검토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알트-데인주의 철칙에 힘입어
며 박선생에게 죄를 씌울수 있도록 문리를 꾸며내며 그에게서
범죄를 추궁하였다.

그들은 박선생게 질문하기를: 왜 당신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위극하는 강의를 간부들과 대부들을 앞에서 계속하고 있는가?
라고 하였다. 그 말에 대하여 박선생은 대답하기를, 저는 당정책
을 위극하는 강의를 할때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대답에

하여서 당 사상검토 지도는 물기를: 당신도 자기 강의에서, 우리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전쟁이 발생할수있을
기분 평안을 청상하여야 된다고 자기 강의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은
가? 이것이 반당 노선이자 반당 정책이 아니냐고 무엇인가?

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로동당원으로써, 김일성
동지러 혁명사상이 근원으로부터 꼭 남방을 리레국가들의 손에
서 해방하기 위하여 정의의 전쟁을 필연코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을시, 박선생을 가르치 - 반당 종파분자라고 부인하였는데

박형식 선생은 자기의 반전 사상이 논리 정연한 철학이라는 것을⁸
확연하게 알면서도 당 사상검토 지도자 앞에서 그것을 벗세할 수
없었다.

이렇게 당 사상검토 회의는 연속 2개월간이나 계속되었으나
사대고직원, 노동당원들은 아무런 정치적 문제도 내걸고 박선생
을 비판하지 않았으며, 부분적 당원들은 정반대로 박선생의 당성
연관성에 대하여 칭찬하였다. 또 부분적 당원들은 박선생에게 소
련 가족주의는 없다고 하면서 그를 시정하면 아주 훌륭한 지도자
부라고 말하며 - 제1회 조선출신간부들끼리 만나 놀기 좋을거라
고 "조선 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으니, 조선서 온 간부들은 왜
자기 자신들을 특별하고 최고중에서 공부시키느냐? 이것이 조선 가족주의
다라고 비판하였다.

사상검토 회의를 2개월 동안 늘리므로 아무런 정치적 감추를
씨울수없는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 사상검토 지도자는
같이 박 결론에서 박선생을 소련을 더 사랑하고 아이들도 소
련 교양을 극을 갖을 보아서 소련에 가서 사느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당 사상검토 지도자는 이런 결론을 내리느냐, 박선생의 특생각
은 전혀 반대 방향이었다. 박선생은 조국의 해방후 15년 동안이
나 건국을 위하여 몸을 바쳐 활하였으나 인제는 영원히 북한에서 살
다 죽을것을 각오하고 아버지의 용근한 유언을 지키기 위하여 인제는 어
려나도 소련에서 모셔오고, 동생도, 누이동생도 데려다 평양대
학들에 같이 교원으로 취직시켜 같이 살며살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살고있는사람들이 생사를 결정하는 노동당 사상
검토 지도자가 인제는 조국에서 살리라고 도록 소련으로 가라는 언로
가 내렸으나, 생각하고 있건바와는 정반대였으나 불행중 다행이라고
밖에는 생각할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상검토 지도자들끼리 결론에
따라, 농촌이나 광산에 내거간 소련출신간부들은 수백명이 가족
과 함께 종족이 없어진 사실들이 8-9 십프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박선생은 이주비 대한 문제를 뛰어넘어 9.
동생과 누이 동생까지 편지를 가지고 어머니를 보내고 소련으로
귀환할 때 대한 물건 수속을 소련 대사관을 거쳐서 시작하였다.
그것은 소련 최고연변회의 상임위원회에 승원으로 제출하여 다시
소련 공민권을 달라는 것과 입국 허가증을 발행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961년 7월에 박선생의 소련 귀환 문제는 월원에 요구한 바와
같이 해결되어 1961년 8월 초순에 접은 평양을 등지고 가족을
대리고 소련 모스크바로 귀환하게 되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박선생은 소련 연방공화국 교육성의 파견에 따라 코소도브시
에 가게 되었다. 여기에서 박선생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평양
기술 - 교육자로서 코소도브주 교육부 교육과장으로 임명되어

1970년 7월에 연금생으로 나가실 때까지 한자리에서
계속 일하시었다. 박선생은 코소도브에 도착하자 언차 사
택을 배정 받았으며, 아이들을 코소도브시에 있는 대학들에
입학시키는 공부하게 하였으며, 학원의 취직 문제도 해결 받았다.

박선생의 모친은 박선생이 소련에 귀환할 당시 모스크바에
서 약 60개로 떨어진 보르도스크시에서 살고 있는 딸집에 계셨다.
그 모친은 하로족의 북한에서 살고 있는 막아들 박형식 선생의 집에 가서
계시다가 세상을 하직하신 자기의 부모들의 고향 - 북한 땅에 불치
러고 연결하셨는데, 북한 조종당 정쟁이 길은가름 막아 1965년
에 세상을 마감하고 소련 땅에서 죽고 되었다. 박형식 선생은 자기
모친의 장례식을 치렀다며 자기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불구를 남기
었다: « 우리 삼남매는 권가족들을 데리고 4일 동안 보르도스크시
너나네 집에 불며들어 뽕시 불국히 지내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
뽕시 허락하나 언자하신 우리 어머니,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들을 항상 따듯한 손으로 만져주고 감싸주고 하던 어머니의
심장이 영영 멀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생애는 정복과 우리들
위하여서였고, 또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서였다. 우리들은 어머니»

가 너무도 불쌍하여 많이 울었다.

그러나 장례식이 지난 그 이튿날, 전복다 사방으로 헤쳐져 갔다.

1965년 8월 20일 비호돌스크.

이것이 70여년간 그 험악한 길을 걸어오시며 남편을 쓰라린국의 한압에 몰고 삼남매를 일궈세워 놓으셨고 끝-끝까지 맞이 막 자기 녀원으로 성취하시지 못하고 세상 떠나신 어머니에 대한 애정스럽고 맞이막 글이었다.

박형식 선생은 연금생활에 나가신 다음에도 시내 각 대학에서 1주 오 시간 정도의 강의는 계속하였으리니, 전 소련 한인 중앙 신문 «레닌기초»의 열성적 직위기자로서도 활약하였었다. 박선생은 맞이막 시기에 기관지염과 심장마비병으로 인하여 수년간 고생하시다가 1974년 11월 6일에 70세를 일기로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었다.

박선생은 북한에서 일하시는데 국가 훈장으로 국가 훈장 3급 2급을 수여 받고 공화국 최고연변회의 표창장을 수여 받았으며,

소련에서 계신 시에 - 유로백 공화국 최고연변회의 표창장을 수여 받고,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기여한 영웅적 공로에 대하여" 한 메달을 소련정부로부터 수여 받았으며, 소련에 다시 귀국한 후 - «조선 해방 메달»; «일제에 대한 승리 메달»; «소련군 30주년 메달» 등을 수여 받았다.

다들 박선생의 사위 따라 계출한 재물에 따라 서술하였음.
관함함.